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의 한 장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의 한 장면

‘곡성’부터 ‘우리들’까지... 올해의 한국영화

# 한명의 배우 한편의 작품 '모두가 소중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좋은 한국영화들이 관객을 찾았다.

올해도 1억명이 넘는 관객이 한국영화를 봤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송강호·황정민·이병헌·하정우·손예진·조진웅·김민희·곽도원·공유·마동석 등 베테랑 배우들의 활약은 여전했고, 김태리·김환희·조우진·박정민 등 자신의 얼굴을 관객에게 또렷이 남긴 새로운 배우들도 있었다. 나홍진·박찬욱·홍상수 감독 등 국내 최고 연출가들의 작품과 윤가은·이일형·장재현 등 신인 감독들의 약진도 돋보였다. 한 명의 배우, 한 편의 영화가 모두 소중했다.

어떤 영화는 화려한 영상과 스펙터클로 관객의 환호와 박수를 끌어냈다.

또 어떤 영화는 한 편의 시가 돼 가슴을 찡고 음악이 돼 마음 속을 울렸다.

긴 호흡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작품이 있었고,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와 함께 주먹을 꽉 쥐게 하고 아름답고 또 아름다워서 눈물을 떨구게 한 작품도 있었다.

그렇게 한 편의 한 편의 소중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는 327편(영화진흥위원회 12월22일 기준)이다.

모두 소중하지만 이 중에서 8편을 추렸다. 미처 보지 못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봐야 할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다.

◇ '곡성'(감독 나홍진)

압도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올해 '곡성'보다 더 강렬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한 작품은 없었다. 이전 무지막지한 에너지로 관객의 혼을 빼는 미친 스틸라다. 관객을 당혹스럽게 한 건 이 영화가 던진 화두였다. '곡성'은 결국 삶의

불가해함을,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영화였는데, 이 지점에서 나홍진 감독의 연출은 적중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본 뒤 그들이 경험한 것을 해석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정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도무지 이 삶을 이해할 수 없기에 허망하게 서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게 나 감독이 원한 것이었다. 나홍진 감독이 '황해' 이후 '곡성'을 내놓기까지 걸린 시간은 자그마치 6년. 나 감독이 차기작을 내놓는 데까지 또 6년이 걸린다고 해도 '곡성' 같은 영화라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 '아가씨'(감독 박찬욱)

흡사 장인정신까지 느껴진다. 박찬욱 감독은 한 장면 한 장면을 세공(細工)하듯 완성했다. 촬영은 우아하고, 미술은 아름답고, 편집에는 낭비가 없다. 박 감독의 영화를 보면 영화감독이 왜 예술가인지 알게 된다. '아가씨'는 예술이다. 이 레즈비언 로맨스는 미친 사랑(몰드브이)도, '지독한 사랑'(박쥐)도 아니었다. 합당하고 정직한 사랑이었다. '아가씨' 전까지 박 감독 세계에 합당과 정직은 없었다. 대신 부조리가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영화에서 부조리에서 조리로 나아간다.

"정치적으로 올리버"(변영주 감독)라는 평가도 있었으니 이전 변화하면 변화하다. 히데코(김민희)와 숙희(김태리)가 담을 넘어 자유와 사랑을 위해 달려가는 그 장면이 이 변화를 상징할지도 모른다. '내 인생을 망치려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짜코 나의 숙희'라는 대사는 올해 가장 인상적인 대사였다.

◇ '우리들'(감독 윤가은)

올해 가장 소중한 영화가 아닐까 단순히

뛰어나서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는 관계들이 내 것이어서 애뜻하고 애달프다. '우리들'을 향한 평단과 관객의 지지는 그런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주인공 영화이지만, 아이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들'은 친구와 동료와 부모, 그 밖에 모든 사람과 관계 맺기가 서툰고 어려운 관객을 위한 영화다. 어려서 힘든 게 아니고 나이를 먹었다고 쉬워지지도 않는다. 매년 힘든 게 관계다. 윤가은 감독은 아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한 뒤, 그 의미를 사려깊게 뽑아내 이야기를 확장한다. 잘못된 걸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는 마음, 뭔가 꼬여버린 것 같은데 풀 방법을 몰라 이어폰을 꽂고 무자정 걷는 그 마음, 속상한 마음에 책상 앞에 앉아 잠 못 이루는 밤, 그 마음을 윤가은 감독은 안다.

◇ '타넬'(감독 김성훈)

한국 재난영화는 '타넬'을 통해 일보 전진했다. '타넬'에는 지난 수 년 간 재난영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일련의 작품들이 보여준 클리셰가 거의 없다. 물론 온전히 독창적인 작품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하고 장면마다 목표가 분명해 관습적이지 않다. 풍자와 해학의 힘을 보여준 영화이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2014년 4월의 일을 떠올리게 한다.

김성훈 감독은 '타넬'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병폐와 폐부를 여실히 드러내는데, 세월호 참사의 트라우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며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게 된다. 이 영화가 뛰어난 건 그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며, 전혀 감성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 '밀정'(감독 김지운)

무엇을 볼 수 있는냐 그 자체가 재능일 수 있다. 김지운 감독은 일제 강점기에서 다른 창작자들이 보지 않을 걸 봤고, 영화로 만들었다. 그건 '흔들리는 마음'이다. 김 감독은 이 시대를 애국과 반역의 이분법이 아닌, 사람이라서 다양한 사람이라서 흔들리는 한 남자로 눈빛으로 표현한다. '밀정'을 정교한 스파이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영화가 다루는 사건 자체가 그리 치밀한 각본에 의해 연출되지 않았다. 평면적이어서 재미없는 캐릭터도 있고, 도구적으로 쓰이고 마는 인물도 있다. 몇몇 장면은 썩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가고자 했던 길과 도달한 지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 그는 길게 갔다. 그가 스파이물에서 이토록 인간적인 인간을 그려낼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건 송강호라는 대배우의 능력이기도 하다.

◇ '부산행'(감독 연상호)

연상호 감독은 실시간으로 데뷔작을 통해 한국 장르영화 영역을 확장했다. 준비는 더이상 생소한 소재가 아니다. '부산행'은 연 감독의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2011), '사이비'(2013)보다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소중한 작품이다. 연 감독은 두 가지 우려를 완전히 날렸다. 애니메이션만 해온 연출가가 실사 영화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사회적 메시지가 진득하게 달라붙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모두 해냈다. 그가 가진 이야기꾼으로서 재능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줄 안다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좋은 창작자는 뻔한 것도 뻔하지 않아 보이게 만들 줄 안다.

/뉴스

## 전북현대 그린스쿨 이야기 공모 '호응'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의 유소년 축구 교실인 그린스쿨이 전라북도의 가족 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린스쿨은 전북현대가 도내 10개 필드에서 1,000여 명의 초등학생 어린이 회원에 대상으로 운영하는 축구교실이다.

전북현대 미래의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그린스쿨이 축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함께 만들고 있다. 최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올 한해 그린스쿨을 다니며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벤트를 그린스쿨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했다. 약 40건의 이야기가 홈페이지에 게시 됐다.

축구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한 이야기, 밝아진 아이로 인해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 등 많은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달라지며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수기를 공모한 조현수 님은 "한 때 무거웠던 아들과의 관계가 전북현대 축구를 통해 돌도 없는 친구가 됐다. 우리 가족에게 행복과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그린스쿨과 전북현대를 사랑한다"며 전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그린스쿨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2016 사인볼과 후드머플러를 전달하고 이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회원에게는 이동국 선수의 친필 사인볼을 선물로 출예정다

/김민근기자

## 올해 가장 활발한 솔로 가수에 소녀시대 태연

올해 아이돌 그룹 멤버 중 가장 활발한 솔로 활동을 보인 가수는 '소녀시대' 태연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음악채널스 지니가 지난 22일 발표한 '2016년 연간차트' (2016년 1월1일~12월20일)에 따르면 태연은 올해 총 5곡을 지니 연간차트 100위권에 진입시켰다.

'레인'(28위), '비이'(48위), '와이'(65위), '제주의 푸른 밤'(88위), '11:11'(95위) 등 빌보드 곡부터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소화했다.

태연은 올해 OST와 CM송을 포함한 총 5장을 앨범을 발매하며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작년 10월 첫 솔로앨범의 타이틀곡 '아이'를 통해 성공적으로 솔로 데뷔를 한데 이어 올해 2월엔 '레인', 4월에 '제주의 푸른 밤', 6월에 '와이', 11월에 '11:11' 등을 히트시켰다.

2위는 '블러비' 지코가 차지했다. 이 차트 100위권에 '너는 나 나는 너'(7위), '보이스 앤드 걸스'(22위), '유레카'(78위), '사랑이었다'(91위) 등 총 4곡을 랭크시켰다.

'에이핑크' 멤버 정은사가 3위다. 올해 4월 발표한 첫 솔로 앨범 '드림' 타이틀곡 '하늘바라기'를 17위에 랭크시켰다.

블러비의 또 다른 멤버 박경도 올해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박경은 두 번째 싱글앨범의 타이틀곡 '자격자심'(Feat. 은하)을 33위에 올랐다.

지니 관계지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솔로활동을 통해 그룹이 가진 색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스타일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년보다 아이돌그룹 멤버의 인기 솔로곡이 연간차트 100위권 진입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추세를 보이며 아이돌그룹 솔로 아티스트들의 음악활동이 네티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